

종교 벽 허물고 '메리크리스마스'

구립 24일 옥천지역 3개 종교단체 모여



구립 25일 성탄절을 맞아 천주교 옥천성당에서는 헤철 스님, 김진구 목사 등 불교, 개신교, 천주교 성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탄미사를 가졌다.

구립 25일 성탄절에 불교, 천주교, 가정교회 성직자가 한자리에 모여 화합의 성탄미사를 개최해 눈길을 끈다.

헤철 스님(옥천불교연합회장)과 김진구 목사(가정성폭력상담소)는 24일 천주교 옥천성당(신순근 비오신부)을 방문해 성탄미사에 참석했다.

헤철 스님은 "올해 종교 편향 문제와 관련해 분열됐던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종교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며 "이웃의 어려움을 치료하고 갈등을 상생으로 발전시키는 인연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옥천의 3개 종교 단체는 5년 전부터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 마다 부처님과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플래카드를 서로의 사찰과 교회, 성당 앞에 내거는 등 종교의 벽을 허무는데 노력해 왔다.

헤철 총정지사장

수영구노인복지관 24일 개관식

사회복지법인 불국토(이사장 헤철)의 18번째 복지기관으로 '수영구노인복지관'이 개관했다.

수영구노인복지관(관장 윤기현, 이하 복지관)은 구립 24일 복지관 4층 강당에서 개관식을 갖고 관내 노인의 복지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행사에는 법산 스님(불국토 상임이사), 박현욱 수영구청장 등 불교계와 지역기관을 대표한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복지관 개관을 축하했다.

복지관 개관준비위원장 법산 스님은 인사말에서 "어르신은 현재의 풍요가 있기까지 이 땅을 일군 주인공으로 대우받아 마땅하다"며 "소외계층에게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지역주민과 협력해 가장 모범적인 복지시설로 운영해 나갈 것"을 약속

했다.

복지관은 불국토가 수영구로부터 위탁받아 총 공사비 30억 원을 투입해 건립했다. 지역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복지관은 향후 건강 증진, 교양, 오락, 기타 복지증진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지원 기자

광주 대원정사 대웅전 상량식 봉행

광주 대원정사(주지 일화)는 구립 21일 대웅전 상량식을 봉행했다.

2007년 6월 8일 원인 모를 화재로 대웅전과 주변요사체가 전소됐던 대원정사는 2008년 5월 건립을 시작해 대웅전을 연건평 60평, 내5포와 7포의 PC공법으로 건축해 상량식을 봉행했다.

완공식은 부처님오신날에 봉행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부처님 자비로 훈훈한 겨울나기

사찰·단체들 전국서 이웃위한 행사 개최



구립 13일 경남 고성 보리수동사에서 열린 송년음악회 현장. 불교계 사찰과 단체 등은 연말연시를 맞아 이웃을 위한 자비의 손길 담은 행사를 연이어 펼쳤다.

차가는 겨울바람만큼 모진 경제 한파에 모두가 움츠리는 때 전국의 불교계 사회복지시설과 사찰 등에서 이웃을 위한 자비의 행사가 잇따라 열렸다.

경남 고성읍 아동복지시설 보리수동산(원장 승욱)은 구립 13일 '아름다운 세상! 하나 되는 우리'를 주제로 송년음악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학렬 고성군수를 비롯한 지역관계자, 봉사자 및 어르신들 300여 명이 참석했다.

승욱 스님은 인사말씀에서 "경제 불황으로 어려운데도 후원과 자원 봉사를 이어온 소중한 분들의 훈훈한 사랑과 정성에 감사하다"며 "여러분의 관심으로 21세기의 꿈나무인 보리수동산 아이들은 오늘도 밝고 건강하게 희망찬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고 말했다.

이학렬 군수는 "내자식은 누구나 사랑할 수 있지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는 쉽지 않다"며 "남을 내 자식 같이 대할 때 우리는 하나

가 될 수 있다"고 축사했다.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관장 무궁)은 구립 19일 복지관 대강당에서 이강수 고창군수, 문상용 고창군보건의료소장과 지역 어르신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2008 복은 문화행사 및 후원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2008년 한 해 복지관 발전을 도운 자원봉사자와 후원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과 강연도 있었다. 이준범 공중보건(고창군보건소)가 '우울증 예방 건강강좌', 유종국 교수(전북과대학)가 '늘어선 복지관 자원봉사자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초청강연을 했다. 이어 복은 노래자랑과 국악공연, 레크리에이션, 품바공연을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무궁 스님은 "2008년 한 해 동안 복지관 발전을 위해 노력한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여러분에게 감사한다"며 "새해에도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불교회관 톨미니어린이집(원장 이연희)은 구립 19일 톨미니어린이집 유희실에서 '불우이웃돕기 온리 원'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어린이들이 직접 판매해 얻어온 수익금은 지구촌 공생회 전북지부에 미안마 초등학교 건립기금으로 기탁했다.

부산에서는 자비의 쌀 나눔 행사가 열렸다. 선찰대본산 범어사(주지 정여)는 구립 23일 사회복지단체를 위한 '제1회 자비의 쌀 나누기 행사'를 열었다.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취지로 진행된 행사에는 범어사 신도들이 직접 기금을 마련해, 불교 사회복지단체 13곳과 개신교 부설 노숙자사회복지관 1곳 등 14개 복지기관에 쌀 20kg들이 130포를 전달했다.

정여 스님은 "이번 쌀 나눔 행사를 계기로 부산의 모든 사찰들이 이웃과 훈훈한 정을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태동 삼광사(주지 영제) 구립

17일 월남참전유공자 가정을 대상으로 '자비의 쌀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어려운 시기에 국가를 위해 몸 바친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쌀 40kg들이 60포를 유공자 가정 60가구에 전달한 삼광사 신도들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생명나눔실천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지, 이하 '광주전남생명나눔')는 구립 21일 무등산 문민정사 앞마당에서 '2008년 생명나눔의 날' 행사를 갖고 지난 1년의 성과를 회향했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전남생명나눔 회원의 집인 광주콜롬버스영화관에서 1년간 모은 헌혈증서 4000매와 사랑의 돼지 저금통 55개 전달식도 진행됐다. 상무미르치과병원에서 치료비를 전달했고, 지역 사찰에서 후원한 희망의 쌀 50포대를 환우가족 10여 가정에 50kg씩 전달하는 행사도 열렸다.

광주전남생명나눔 회원에 대한 표창도 이어졌다. 500여 자원봉사자들 중에서 98시간을 자원봉사한 송명선(조선대)씨가 자원봉사 대상을 수상했다. 자원봉사상에는 김선화(전남대), 정재화(동원전자정보) 박한솔(조대여중) 김도희(점단중) 김형식(원각사 청년회) 범정택(원각사 청년회) 오현이(송원대) 정희원(송원대) 김인숙씨 등이 수상했다. 동지 나눔행사와 함께 진행된 행사에는 가수 류상호씨와 주권기씨의 문화공연도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헤철 총정지사장/청운 경남남부지사장/조동제 전북지사장/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박지원 기자

부산 해동중 수계법회 중학생 120여 명

중학생 친진불 120여 명이 졸업을 앞두고 수계를 받았다.

부산 해동중학교(이사장 홍교)는 구립 24일 범어사 설법전에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졸업을 앞둔 3학년 120명은 정여 스님(범어사 주지)을 계사로 수계를 받았다. 정여 스님은 "수계의 '계'는 울타리가 지켜주는 형상이다. 계를 받는다는 것은 '혼자 걷는 어두운 밤길을 비춰주는 등불'을 만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법회에서 정여 스님은 5가지 계율을 청소년 불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관련 설화와 월남참전당 당시의 경험담 등을 통해 재미있게 풀이해 학생들의 집중도가 높았다.

박지원 기자

전북지역 교도소불자회 무자녀 송년대법회

순간의 실수로 참회의 길을 살고 있는 불자 재소자들이 올 한해를 마감하는 무자녀 송년법회를 봉행했다.

군산교도소는 구립 17일 재교 스님(군산 관음사를 법사로 초청해 송년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관음사 재교 스님, 동국사 종결 스님, 성공문 전 전북교사단장 등 50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재교 스님은 법어에서 "여러분들의 실수로 인해 가족까지 함께 고통 받고 있다"며 "내가 먼저 참회하면 모든 이들의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회를 주관한 성공문 전 단장은 "영어의 몸이지만 한해 마무리를 잘 해 한시바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자"고 권했다.

전주교도소도 구립 18일 송년법회를 봉행했다. 정음 일광사 승천 스님, 전북불교회관 이원일 사무국장 등 2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법회에는 전북 공무원불자 가족들도 참석해 불자 재소자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신심·원력으로 이국생활 잘하길"

헤인 스님, 남태평양 괌 불자 교민 위한 법문

남태평양 괌의 한국사찰 보타산 낙가사(주지 도해)는 구립 21일 헤인 스님(제주 약천사 회주)을 초청해 특별한 법석을 마련했다. 괌 거주 한국 교민들을 위해 마련된 법회는 1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여법하게 봉행했다.

헤인 스님은 "타지생활이 때때로

힘들겠지만, 늘 관세음보살을 염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신심과 원력으로 극복해나가길 바란다"고 법문했다.

한편 보타산 낙가사는 관음기도도량으로, 불자 어학연수생 및 괌을 찾는 여행자라면 누구나 머물다 갈 수 있는 세계적인 포교도량이다. (1671)477-6351 박지원 기자



헤인 스님은 구립 21일 괌 보타산 낙가사에서 한국교민들을 상대로 초청 법문을 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

법인등록번호 134671-0002921호

- 총 재 혜 정 (사단법인 대한불교일승종 총무원장)
- 부총재 무 송 (사단법인 대한불교회엄종 총무원장)
- 혜 안 (사단법인 대한불교무량종 종정)
- 우 담 (중앙조계종 총무원장)

회 장 송 산 (사단법인 대한불교해동종 총무원장) 부회장 마 정 (임제선학원 종무총리) 정 립 (사단법인 수미산문 조동정종 총무원장)

사무총장 법 봉 (사단법인 대한불교승가종 총무원장)

- 이 사 법 인 (한국불교원각종 총무원장)
- 이 사 법 성 (국제불교선덕종 총무원장)
- 이 사 일 초 (사단법인 대한불교삼계종 총무원장)
- 이 사 대 명 (대한불교전지종 총무원장)
- 이 사 대 일 (대한불교법륜종 총무원장)
- 이 사 무 각 (사단법인 대한불교정토종 총무원장)
- 이 사 정 일 (한국불교근본해동종 총무원장)
- 이 사 구 화 (대한불교구화종 총무원장)
- 이 사 해 운 (대한불교정토조계종 총무원장)
- 이 사(감사) 향 운 (세계불교법사종 총무원장)
- 이 사(감사) 법 천 (대한정토불교조계종 총무원장)
- 이 사 덕 진 (호국불교원각종 총회의장)
- 이 사 지 고 (세계불교법사종 총회의장)

◆ 사무실 : 경기 안성시 보개면 신장리 산 44번지 영평사 전화: (031)676-3960 / 사무총장 이 1-9330-6210

佛記2553年 己丑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